

## 기독교 대안학교 만족도, 일반학교 대비 ‘압도적’!

공교육의 위기 속에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전략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가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기독교 대안학교 vs 일반학교 학생·학부모 인식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안학교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는 91%로 일반학교 학부모(38%) 대비 압도적이었다.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의 교회 출석률이 98%에 달하고, 신앙단계가 깊어질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상승한다는 점은 기독교 대안교육이 영적 성숙과 정서적 안정을 지탱하는 강력한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호에서는 기독교 대안교육이 거둔 성과를 확인하면서 한국교회가 공교육의 한계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교육적 대안으로 기독교 대안학교 사례를 소개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 대안학교 vs 일반학교 학생·학부모 인식 비교 조사

### 조사개요

구 분	학생 조사		학부모 조사	
	일반학교 학생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일반학교 학부모	기독교 대안학교 학부모**
조사 대상	국내 거주하는 일반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국내 거주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국내 거주하는 일반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부모	국내 거주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표본 규모	500명(유효표본)	원표본 : 495명 가중치 적용 후 유효표본 : 425명	500명(유효표본)	원표본 : 516명 가중치 적용 후 유효표본 : 466명
조사 기간	2025년 12월 3일 ~ 2025년 12월 14일	2025년 11월 21일 ~ 2025년 12월 29일	2025년 12월 3일 ~ 2025년 12월 14일	2025년 11월 21일 ~ 2025년 12월 29일
표본 추출	지역/성/학년 비례할당 추출*	편의추출	지역/성/학년 비례할당 추출*	편의추출
조사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대안학교 조사 학생 대상은 23개교, 학부모 대상은 25개교가 참여하였음. 학교별 응답 수의 편차로 인한 과표집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학교당 50표본을 초과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교별 최대 표본 수를 50으로 제한하였음			
조사 의뢰 기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조사 수행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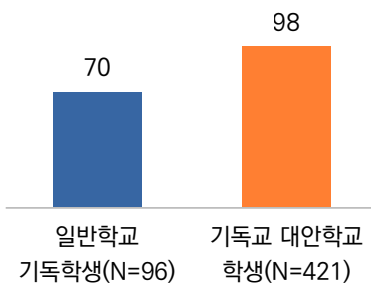
\* 지역/성/학년 비례할당 추출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25년 교육통계연보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추출함.

\*\* 대안학생 및 기독교 대안학교 학부모 조사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전국 36개 이상의 기독교 대안학교에 실사 협조를 요청하고, 각 학교의 협조를 받아 설문 링크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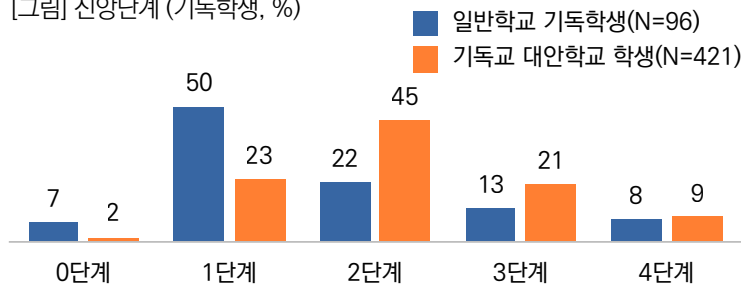
##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일반학교 기독교학생보다 신앙 수준 전반적으로 높아

- 일반학교 기독교학생과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의 개인 신앙 수준을 비교한 결과, 교회 정기 출석률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학교 기독교학생의 교회 출석률은 70% 수준인 반면,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은 98%로 거의 대다수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신앙단계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는데, 일반학교 기독교학생은 신앙이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 이하'가 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은 2단계가 45%로 가장 많아, 전반적으로 대안학교 학생들이 더 높은 신앙 성숙도를 보였다.

[그림] 교회 출석률 (기독교학생, %)



[그림] 신앙단계 (기독교학생, %)



Note) 신앙단계 설명: 일반적으로 4단계로 묻지만, 중고생이기에 0단계를 추가함

0단계 : 나는 개신교인이지만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겠다.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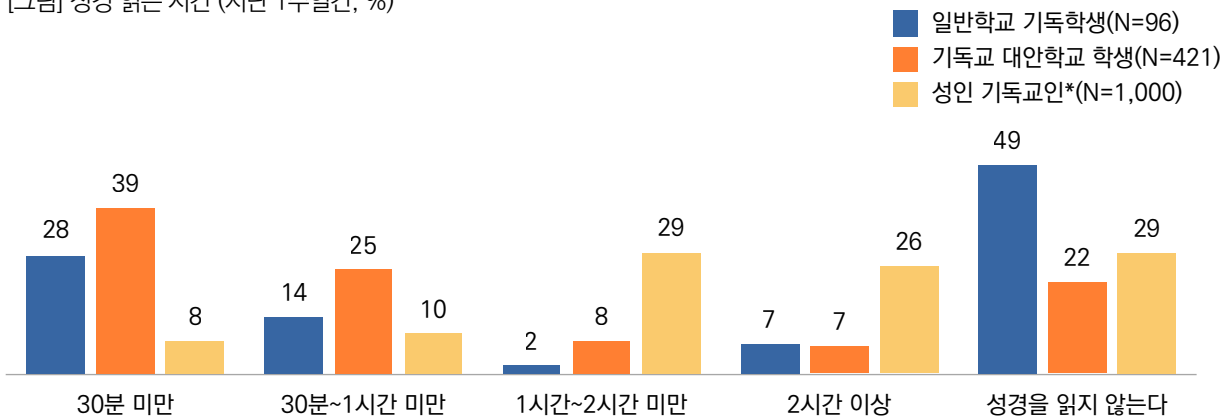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 지난 1주간 성경 읽기,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78% vs '일반 기독교학생' 51%

- 지난 1주일간 성경 읽은 시간을 살펴본 결과, 일반학교 기독교학생의 경우 절반가량(49%)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성경을 읽은 학생 중에서도 '30분 미만'이 28%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안학교 학생은 22%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일반학교 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도 긴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 성경 읽는 사람 비율로 보면 성인 기독교인(71%)보다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78%)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그림] 성경 읽은 시간 (지난 1주일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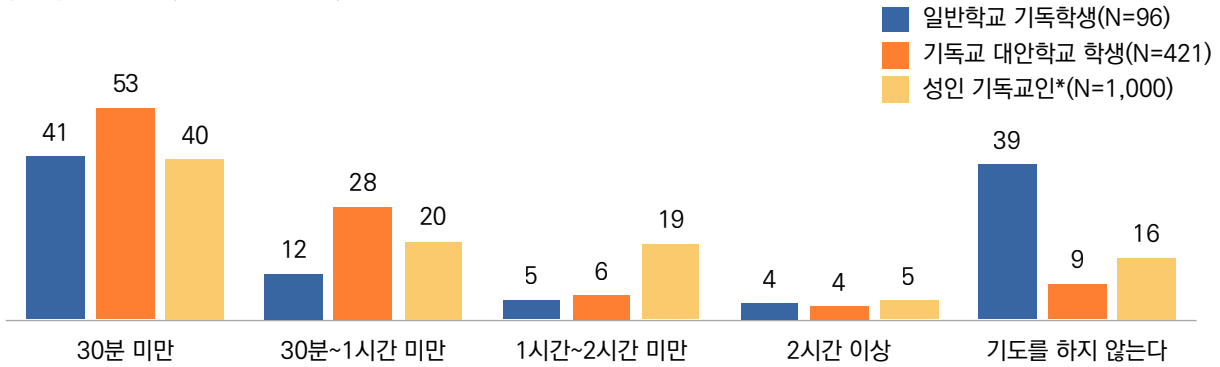


\*성인 기독교인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희망친구 기아대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6, 2025.09.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온라인 조사, 2025.05.15.~05.22.)

##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의 ‘기도 습관’은 성인 기독교인보다 앞서!

- 지난 1주일간 개인 기도 경험을 조사한 결과,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의 91%가 기도한 적이 있다고 답해 일반학교 기독교학생(61%)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이 수치는 성인 기독교인(84%)의 기도 경험률보다도 높아, 기독교 대안학교가 학생들의 일상적인 기도 습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환경임을 입증한다.

[그림] 기도 시간 (지난 1주일간, %)



\*성인 기독교인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희망친구 기아대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6, 2025.09.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온라인 조사, 2025.05.15.~0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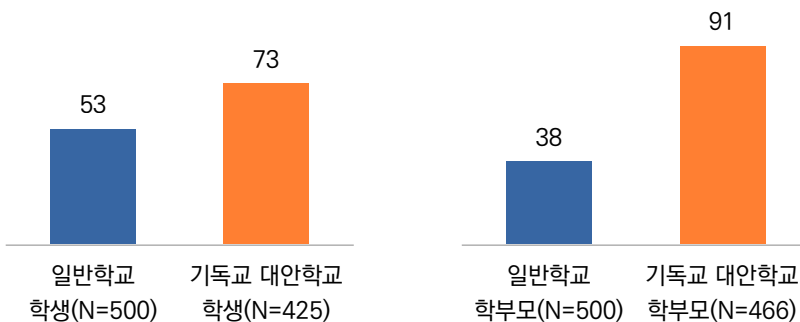
## 02

### [학교 생활과 만족도]

## 기독교 대안학교 만족도, 일반학교 대비 ‘압도적’!

- 학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는 일반학교를 압도했다.
- 먼저 학생의 경우 ‘대안학교 학생’(73%)이 ‘일반학교 학생’(53%)보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고, 학부모 차이는 더욱 극명하여 ‘대안학교 학부모’의 자녀 학교 만족도는 91%로 ‘일반학교 학부모’(38%)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 학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매우+약간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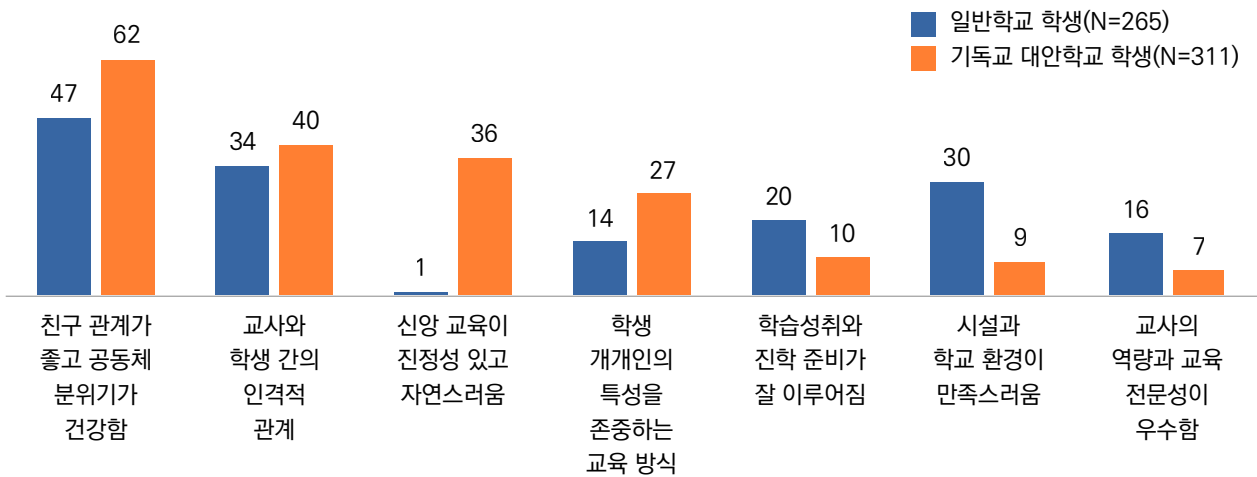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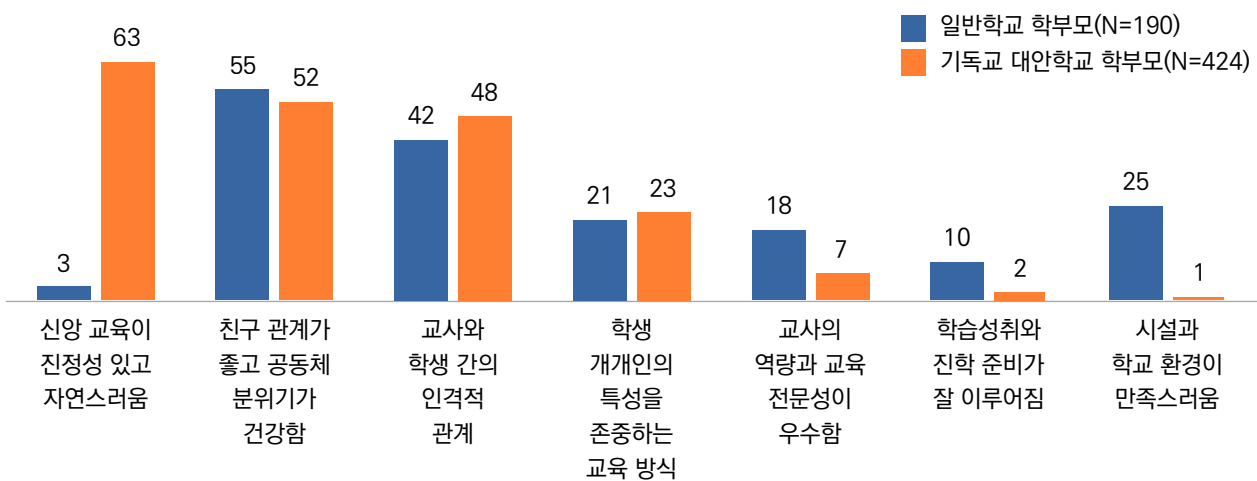
## 기독교 대안학교 만족 이유, 학생은 '관계', 부모는 '신앙 교육'!

- 현 학교의 만족 이유는 '좋은 친구 관계와 건강한 공동체 분위기'가 일반학교(47%)와 기독교 대안학교(62%) 학생 모두에서 1위로 꼽혔다.
- 반면 학부모의 만족 이유는 학교 유형에 따라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학교 학부모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친구 관계(55%)'와 '교사와의 관계(42%)'를 주요 사유로 꼽았으나, 기독교 대안학교 학부모는 '진정성 있는 신앙 교육(63%)'을 최우선 만족 이유로 선택했다. 이는 기독교 학부모들이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낼 때 단순한 인성 교육을 넘어 '신앙의 전수'를 가장 본질적인 가치로 기대하고 있으며, 학교가 이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학교 만족 이유 (현재 학교에 만족하는 학생, 1+2순위,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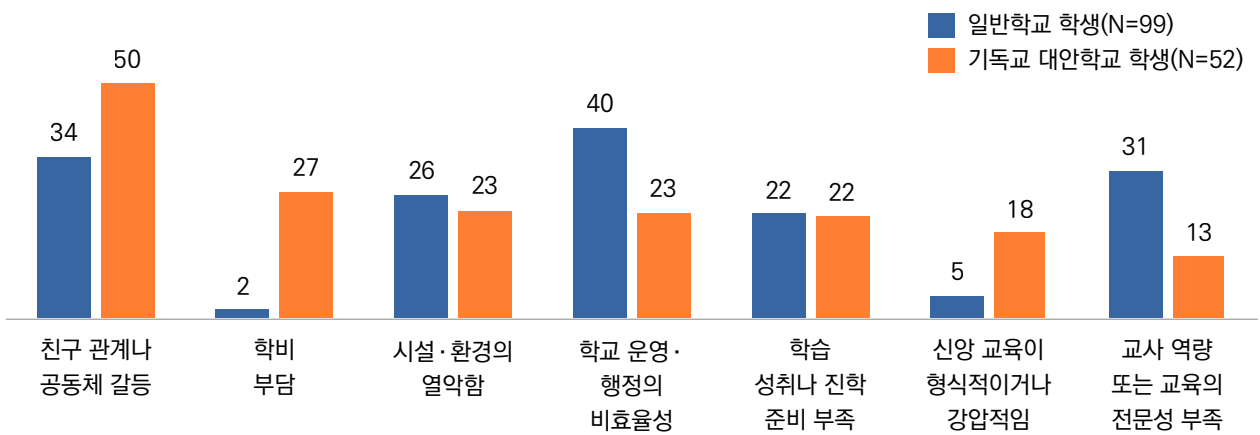
[그림] 학교 만족 이유 (현재 학교에 만족하는 학부모, 1+2순위,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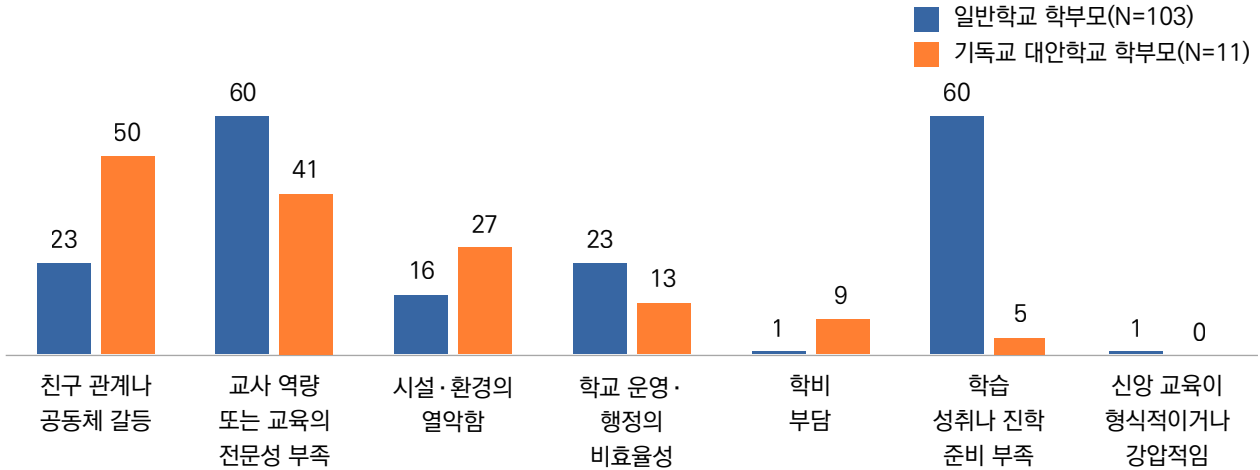
## 대안학교 불만족 이유 1위, '친구·공동체 갈등'!

- 현 학교의 불만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학교 학생은 '학교 운영 및 행정의 비효율성(40%)'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은 반면,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은 절반(50%)이 '친구 관계나 공동체 갈등'을 1위로 선택했다. 이는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대안학교의 특성상,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만족도를 저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 학부모의 인식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일반학교 학부모는 '교사 전문성 부족(60%)'과 '진학 준비 부족(60%)' 등 교육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대안학교 학부모는 대안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친구 관계나 공동체 갈등(50%)'을 가장 큰 불만족 사유로 꼽았다. 기독교 대안교육의 강점인 '관계와 공동체'가 역설적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림] 학교 불만족 이유 (현재 학교에 불만족 하는 자, 1+2순위,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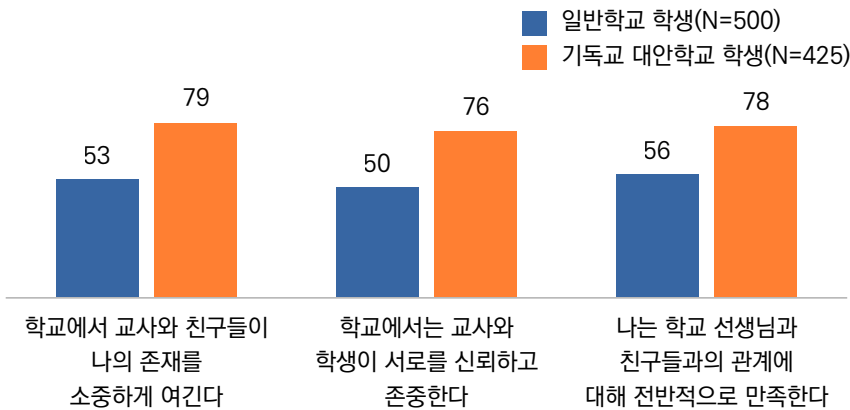
[그림] 학교 불만족 이유 (현재 학교에 불만족 하는 학부모, 1+2순위, 상위 7개, %)



## 교사·친구 관계 만족도,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이 최대 30%p 높아!

- 학생들의 학교생활 지표 중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 항목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의 긍정 인식('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이 일반학교 학생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그림]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 (학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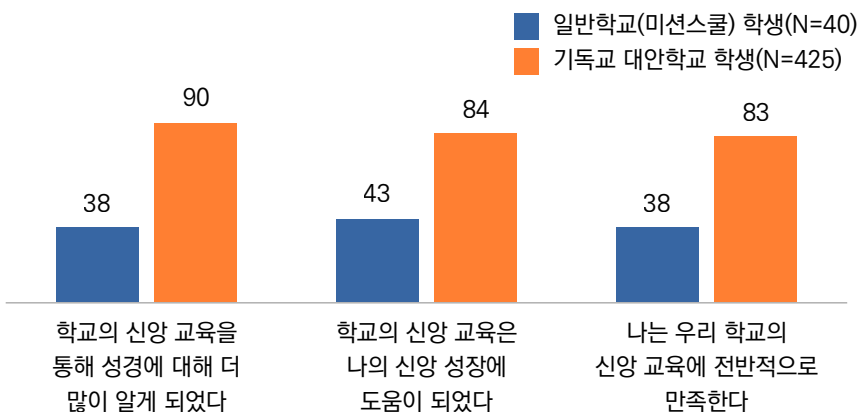


\*5점 척도

## 신앙 교육 전반적 만족도, 기독교 대안학교 83% vs 일반 미션스쿨 38%!

- 이번에는 학교생활 지표 중 '신앙 교육' 항목을 살펴본 결과, 일반학교(미션스쿨) 학생과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간 인식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 일반학교(미션스쿨) 학생은 '성경 이해 수준 증진'(38%), '신앙 성장에 도움'(43%), '전반적 신앙 교육 만족도'(38%) 등 주요 항목에서 모두 30~40%대의 긍정률을 보인 반면,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은 각각 90%, 84%, 83%로 모든 항목에서 80% 이상의 높은 긍정률을 보였다. 이는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이 체감하는 신앙 교육의 질적 수준과 실제 효과 측면이 일반 미션스쿨 학생보다 훨씬 더 높은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신앙 교육 (학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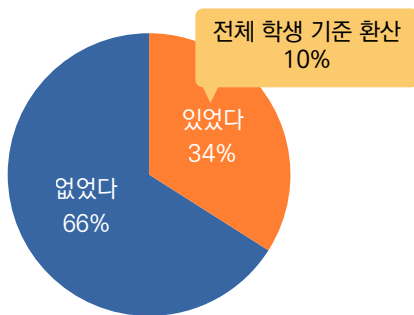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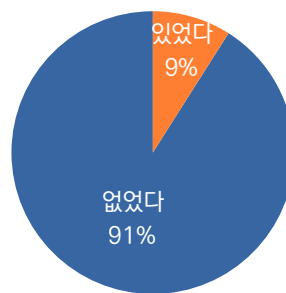
## 일반학생 10%, 대안학교 진학 고민했으나, '입시·통학·친구' 문제로 포기

- 대안학교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일반학교 학생 중 34%가 실제 입학 고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일반학생 기준으로 환산하면 10명 중 1명(10%) 수준으로, 공교육 외 대안적 교육 모델에 대한 잠재 수요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 한편, 일반학교 학생 중 부모로부터 대안학교 진학을 권유받은 비율은 9%였는데, 이들이 부모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학을 포기한 이유를 살펴보면, '입시 준비에 불리할 것 같아서(24%)', '통학 거리가 멀어서(24%)', '친구들과 떨어져서(24%)'가 공동 1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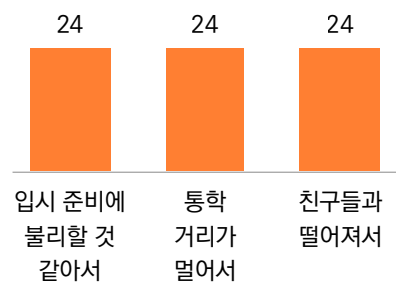
[그림] 일반학생의 대안학교 입학 고민 경험  
(현재 학교 입학 전 대안학교 인지한 일반학교 학생, N=153)



[그림] 부모님의 대안학교 진학 권유 여부 (일반학교 학생,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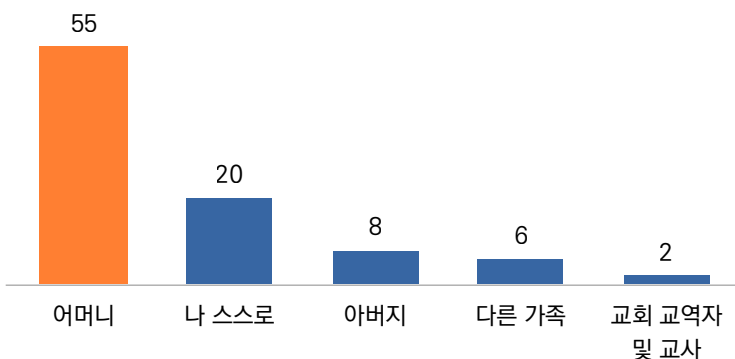
[그림] 대안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이유  
(학교 입학 전 부모에게 대안학교 권유 받은 경험 있는 일반학교 학생, 1+2순위, 상위 3개, N=68, %)



## 기독교 대안학교 입학 권유자 1위, '어머니'(55%)...5명 중 1명은 '스스로 결정'!

-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고민을 처음 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은 결과, '어머니'가 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자녀의 교육 환경과 신앙 성장에 있어 어머니의 판단과 영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나 스스로' 입학 고민을 결정했다는 응답도 2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안학교 진학이 단순한 부모의 권유를 넘어, 학생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능동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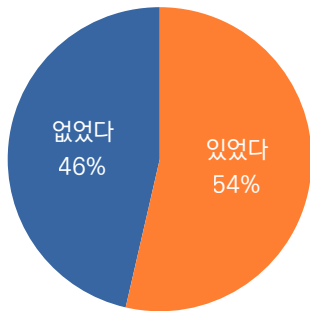
[그림] 대안학교 입학 권유자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상위 5개, N=4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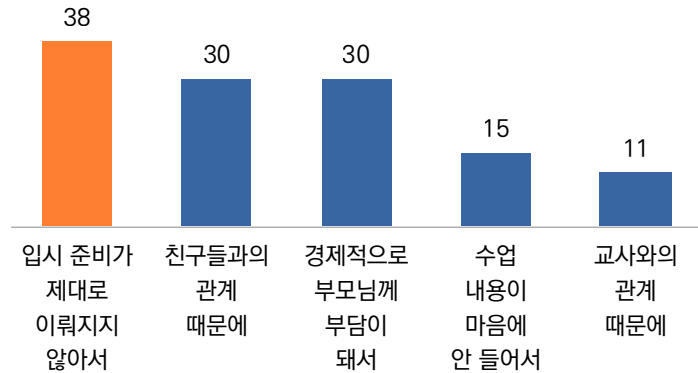
##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절반 이상, '일반학교로 전학 고민한 적 있다'!

- 대안학교 재학생의 학교생활 이면에는 공교육으로의 복귀를 고민하는 흔들림도 존재하고 있었다.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의 54%가 '일반학교로 전학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절반 이상은 공교육으로의 복귀를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전학을 고려한 이유로는 '입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38%)'가 1위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특유의 커리큘럼이 대학 진학이라는 현실적 관문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장 큰 이달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림] 일반학교 전학 고민 경험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N=425)



[그림] 일반학교로 전학 가고 싶었던 이유 (일반학교 전학 의향 있었던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1+2순위, 상위 5개, N=2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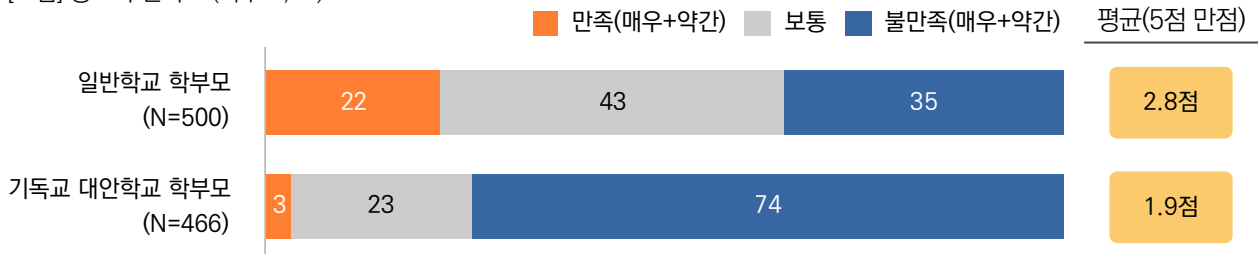
## 04

### [공교육과 대안학교 인식]

## 대안학교 학부모 4명 중 3명(74%), '공교육 불만족'!

-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어떠할까? 조사결과 일반학교 학부모의 만족도(매우+약간 만족)는 22%로 5명 중 1명 수준이었고, 기독교 대안학교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는 3%에 그쳐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 특히 공교육에 대해 '불만족'(매우+약간) 비율은 일반학교 학부모 35%, 대안학교 학부모 74%로 나타나, 대안학교 학부모일수록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된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공교육 만족도 (학부모, %)



## 이번호 요약

### 1.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일반학교 기독교학생보다 신앙 수준 전반적으로 높아

일반학교 기독교학생과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의 개인 신앙 단계를 살펴본 결과, 일반 기독교학생은 신앙이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 이하(5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은 2단계가 45%로 가장 많아, 전반적으로 대안학교 학생들이 더 높은 신앙 성숙도를 보였다.

### 2. 기독교 대안학교 만족도, 일반학교 대비 '압도적'!

대안학교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는 91%로 일반학교 학부모(38%) 대비 압도적이었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도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73%)이 일반학교 학생(53%)보다 20%p가량 높았다.

### 3. 기독교 대안학교 만족 이유, 학생은 '관계', 부모는 '신앙'!

현재 학교에 만족 이유로는 일반학교(47%)와 기독교 대안학교(62%) 학생 모두 '좋은 친구 관계와 건강한 공동체 분위기'를 1위로 꼽았다. 반면 기독교 대안학교 학부모의 경우 '진정성 있는 신앙 교육(63%)'을 최우선 만족 이유로 선택했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생명력이 넘치는 기독교대안학교 이야기 (기대연, 예영커뮤니케이션)

## 관련 성경 구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 목회 적용점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기독교 청소년일지라도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성수나 공과 공부를 포기하고 학원으로 향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는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신앙과 학업을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기독교 대안학교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기독교 대안교육의 높은 만족도와 영적 성숙에의 도움은, 다음 세대 교육의 장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을 넘어 학교와 가정에서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는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회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교회-가정-학교를 잇는 신앙 교육의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 신앙이 입시라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교회의 사역 반경을 교회 안에서 학교와 가정으로 확장해야 한다. 교회는 아이들이 치열한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영적 안식처'가 되는 동시에, 가정과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돕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과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신앙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실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진로의 핵심 가치로 제시해야 한다. 대안학교 학생들조차 입시 불안으로 전학을 고민하는 현실은 우리 교육 현장이 여전히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매여 있음을 보여준다. 교회는 청소년들이 진로의 문제를 단순히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소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멘토링과 성경적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입시의 불안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